

#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연구

## Study on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and Kinetic Family Drawing Respondent Characteristics

이 정 숙\* · 김 윤 회\*\*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가족 주거학과 부교수\*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가족 주거학과 시간강사,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Lee, Jung Sook\* · Kim, Yun Hee\*\*

Dept. of Consumer & Family Studies,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was analyz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and Kinetic Family Drawings that was responded their mental aspect.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by sex, age, region and gra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Second, Kinetic Family Drawings respondent characteristics by their sex, age, region, grade and sibling ord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and Kinetic Family Drawing respondent characteristics, when the group had less conflict and more interaction among family members, they could separate their subjective and objective tension and they could attach to their parents. In the case that crisis was occurred in their family, they had less possibility to represent dysfunctional communication style or regressive behaviors.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KFD(Kinetic Family Drawing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 및 목적

대학생시기는 성인에서 의존되었던 아동기를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고 책임있는 성인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나 대학생활이라는 새롭게 닦쳐온 변화와 주체할 수 없는 자율속에서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자아”에 대한 반복적인 의문을 갖게 되며,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자아”를 찾으려 애쓰고 대학생으로서의 적응을 위해 방황하게 되고 방황 속에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

---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 Sook

Tel. 02)2290-1185, Fax. 02)2290-1185

E-mail : ljs1994@email.hanyang.ac.kr · acknowledge@hanmail.net

제로 인한 고독감을 심하게 느끼고(권석만, 1997),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족관계의 문제를 함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유정이, 1993).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개인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아분화란 개인 성장의 목표로서 미분화된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며,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동시에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김순재, 1996, 재인용).

자아분화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격과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석봉(1989)은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부정, 왜곡, 투사, 합리화 등 회피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미영(1993)은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정신내적인 측면과 가족 역동성의 차원에서 개인의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자아분화가 개인의 성격 및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적응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편, 그림이라는 매개체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신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의 감정을 저항 없이 무의식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언어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김재은, 1988).

특히 동적가족화(KFD)검사는 그림을 통한 하나의 투사적 방법으로 가족성원들에게 운동성을 부여한 것으로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알아보는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 및 상호작용 요인을 분석하고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1993).

국내의 최근 연구들 중 동적 가족화(KFD)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소 활발해지고 있으며 자아개념이나 성격과 관련된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윤희(1998), 이명희(1997)의 연구와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최외선(1995)의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석(199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와 동적 가족화(KFD)의 반응특성(최외선, 전미향, 1996)과 자기성장프로그램에 따른 동적 가족화(KFD)반응특성(강영자, 김윤희, 진향덕, 1998)에 대한 것은 있으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KFD)간의 연구는 거의 없다.

반면,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에 의해 가족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측면과 가족에 대한 역동성을 이해하게 하며 동적가족화(KFD) 또한 그림을 통해 투사된 가족에 대한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분화와 동적가족화(KFD)와 관련하여 가족의 역동성 및 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와 가족의 역동성 및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동적가족화(KFD)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동적 가족화(KFD) 검사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자아분화와 동적가족화(KFD)와의 관계를 통해 가족에 대한 심리적인 특성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가족내에서 느끼는 정서적 갈등이나 가족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각 대학내에서 상담이나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특히 개인의 내적문제보다는 개인이 처한 관계 맥락인 가족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치료나 상담에 준거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분화

자아분화란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Bowen, 1976). 즉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인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분화되어 자기 자신과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대

인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 삶을 산다고 하였다(김순재, 1996, 재인용).

자아분화의 구성개념에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있다. 첫째,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한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는 인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삶은 인지적 체계가 분화 또는 발달되지 않아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자아가 분화된 사람은 인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지각, 평가하며 삶의 위기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자아의 통합으로 자아는 진아(眞我)와 가아(假我)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의 분화는 진아발달로 진아는 명확한 신념과 견해, 확신 및 생활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라도 안정적이며 관계체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반면 가아는 위장된 자아로서 관계체계에 의해 결정되고 불안정하여 쉽게 변하며 사회적 압력이나 자극에 따라 유동적이고 타협적인 성격을 띤다. 셋째, 가족투사과정으로 부부의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핵가족 정서체계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역기능적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부부간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한다. 이러한 투사과정은 어떤 가정에서나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분화는 부모로부터의 투사의 양에 달려 있다. 넷째, 정서적 단절로 인간이면 누구나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애착이 강할수록 자아 분화되기 어려우며 정서적 단절은 가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가출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퇴행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는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미분화되고 동질화의 경향이 심하며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건설적인 방법보다 퇴행적 방법으로 반응한다(Bowen, 1976, Hollander, 1983).

또한 자아분화는 미분화된 가족자아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충동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가는 분리 개별화와 심리적 독립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제석봉, 1989). 대학생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제 2의 분리개별화 과정 중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성인으로 사회적 역할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김미정, 1997).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관련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opez, Campell & wakins, 1986; 정미란, 1994; 김미정, 1997).

Lopez, Campell & Wakins(1986)는 심리적 독립성과 대학적응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심리적 독립성이 높았고 남자의 경우는 관련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심리적 독립, 적용이 모두 부적인 상관이라고 보고하였다. 정미란(199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시기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반적인 자아분화 수준과 자아분화의 하위변인이 발달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자아분화수준이 더 많이 진행되었다. 김순재(1997)의 연구에서는 가족퇴행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자아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성별이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수준만을 살펴보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제 2의 분리화 단계 및 심리적 독립시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자아분화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동적 가족화(KFD)

동적 가족화(KFD)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 전원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만화나 막대기 같은 상이 아닌 완전한 형태의 사람으로 그리게 한 것으로 피검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역동적인 가족관계를 나타낸다(최외선, 1996).

동적 가족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각의 선택성(selectivity of perception)을 들 수 있는데 선택적 지각이란 그림을 그리는 아동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말한다. 동적 가족화를 지시

할 때 아동은 가족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위, 또는 동작을 행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요구받는다. 그때 아동은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들의 일상 생활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며 그림속의 가족구성원은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가족전원이 합동하여 작업을 분담하는 표현도 보인다. 가족성원의 일상적 행위나 동작 중에서 그림에 나타난 행위나 동작이 선택적으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묘화자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에 의존하고 있고 결국 우리들은 객관적, 물리적 환경에서 산다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주관적, 심리적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각의 선택성은 개인 고유의 주체적 심리적 장을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1993).

동적 가족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묘사하도록 하므로 가족의 역동을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개인의 문제에 대한 표현욕구를 탐색할 수 있다. 동적가족화는 어떤 의미에서 주제통각검사(TAT)와 유사한 면이 많은데 즉 자신의 가족을 그리는 것이라는 점과 TAT가 언어표현 양식이란 점, 불특정의 인물을 소재로 하는 점등의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동적인 상태의 자유를 포함하는 점과 인물상을 상호 관련 지우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1993). 결국 사회생활을 통해서 몸에 익힌 일정의 보편적 테두리를 배제하고, 처음으로 진실한 개성을 만난다고 하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동적 가족화는 비언어적 방법보다 자유로운 자기 표현방법을 허용하는 그림을 요구하고 있다(김윤희, 1998).

동적 가족화의 기능으로는 개인이나 가족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적 기능과 자아의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치료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동적 가족화의 진단적 측면에서의 기능은 그림 속에 인물의 동작이 내포되어 있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묘화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를 나타낸 인지적 구조가 투사된 것으로 보고, 개인의 성격형성이나 가족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로서의 동적 가족화의 기능은 무의식중에 있는 욕구, 감정, 행동이 표현되어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

회가 부여되고 개인의 방어기제를 재구성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왜곡된 자기개념을 처리하고 공상과 현실을 구분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어적·비언어적 대인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한 자아동일시의 확산과 재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영석, 1994). 박혜련(1992)의 연구에서는 행동장애 청소년들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대상을 동적 가족화에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보다 갈등대상이나 자신을 그림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정상 청소년들은 가족원간의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융통성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영석(1994)의 연구에서는 동적 가족화에 의한 청소년들의 가족지각 특성과 성별과의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선남(1996)의 연구에서는 동적 가족화의 하위변인 중 자신의 에너지, 어머니의 팔길이, 어머니의 행위, 그림의 조화, 다른 상에 대한 자기상의 상대적 크기, 상이 지면의 왼쪽에 위치한 정도, 부정적 위치, 어머니의 얼굴형태, 상이 오른쪽에 위치한 정도가 우울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아분화와 동적가족화(KFD)

자아분화는 가족역동성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한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및 정서적 성숙 그리고 개인이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 가족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분화처럼 동적 가족화는 개인의 정서적인 면과 가족간의 상호작용 이해에 중요하며 투사된 가족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Giglio(1987)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의 심리적 과정을 발달적 관점과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 임상군 청소년/부모집단이 비임상군 청소년/부모집단보다 초조, 회피, 혼란, 비판적 경향을 나타내어 동적 가족화가 청소년의 분리불안 스트레스의 상담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 O'Brien와 Patton(1974)는 10-14세의 남자 42명과 여자 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자아감(SEI)이나 불안

(CMAS)에 동적가족화의 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한 결과, 인물상의 방향은 동료적 자아개념, 가족수는 학구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특히 자기상이 아버지와 마주 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료적 자아감이 높았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학구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제수가 많을수록 덜 공격적이고, 위축행동은 여아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고립행동은 성별과 성적이 예언해 주었는데 성적이 낮은 아이가 고립행동을 더욱 나타냈다.

최외선(1995)은 한국아동과 한국계 미국 아동의 자아개념과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역동성과의 비교문화를 연구한 결과 한국 아동이 한국계 미국 아동보다 자아개념이 낮았고 동적 가족화에서 나타난 가족의 역동성에서는 아버지를 상단에 그리는 경향이 높아 한국의 가부장적 특성을 잘 반영했으며, 한국계 미국아동이 한국아동보다 자기상이 정면으로 향하는 경향이 높아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인물상간의 거리는 한국 아동이 한국계 미국 아동보다 부모와의 거리가 멀었으며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신의 위치를 상단에 그리고 인물상이 서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동적 가족화가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 연구(최외선, 1998)에서 성별에 따라 인물상의 행위차원, 크기, 역동성에 차이를 나타냈다. 강영자, 김윤희, 진향덕(1998)의 연구에서는 자기성장프로그램을 경험한 대학생이 협동성, 우월성, 포위하기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족원간의 역할유형이 분리되어 있으며 부모님을 권위적이고 존경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가족원간의 정서적 불안이나 공포를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아와 관련된 동적가족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아동을 벗어나 독립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준비과정을 겪는 대학생들의 자아수준과 동적가족화를 통해 가족에 대한 태도 및 역동성을 이해하여 건강한 정신건강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 Ⅲ. 연구문제 및 용어정의

#### 1. 연구문제

- 1) 대학생의 자아분화는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대학생의 동적 가족화(KFD) 반응특성은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KFD) 반응 특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용어의 정의

##### 1) 자아분화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및 정서적 성숙과 그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하며 자아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나 구별되는 점은 자아분화에는 가족내의 상호작용 요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2) 동적 가족화(KFD: Kinetic Family Drawings)

동적 가족화(KFD)는 종래의 가족화에 행위와 동작을 수반하여 다양한 인물상과 전체를 통제하는 역동성이 투사되는 것으로 개인이 받아들이거나 각 구성원이 나타내는 대인관계와 전체로서의 자신의 눈에 비친 가족의 역동성을 읽게 하는 그림검사로 정의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전주, 대전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1999년 5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
성	남학생		167(53.96)
	여학생		143(46.04)
연령	18-20세		150(48.78)
	21세이상		160(51.22)
지역	서울		187(60.3)
	지방		123(39.7)
학년	1학년		75(24.2)
	2학년		106(34.2)
	3학년		52(16.8)
	4학년		77(24.8)
형제순위	말이		125(40.3)
	중간		62(20.0)
	막내		110(35.5)
	외동		13(4.2)

## 2. 측정도구

### 1) 자아분화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점 Likert 척도이며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지고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7문항), 자아의 통합(6문항), 가족투사과정(6문항), 정서적 단절(6문항), 가족퇴행(11문항)의 신뢰도계수는 .65, .69, .64, .66, .67로 나타났다.

본 검사지에서 나타나는 5가지 하위영역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사려성, 자기 감정의 통제능력 등의 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충동성, 합리화, 약물 남용과 같은 불안 경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융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자아의 통합

개인이 관계 체제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가족 투사 과정

어릴 때 투사의 가능성이 높은 자녀간의 의사거래 유형과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징(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근심)을 묻는 문항과 과거에서부터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 상태의 일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정서적 단절

정서적 단절의 정도를 재기 위해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의 정신 내적 기제의 사용, 부모에 대한 반항, 가족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가족 퇴행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성원들이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 가족 성원들 간의 갈등 처리방법이나 폭력 등의 유무,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위,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가족성원들의 동질화 추구경향, 가정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삼자의 삼각화 경향, 가정 바깥에서의 성문제 기타 가족 성원간의 역기능적인 의사거래 유형 및 가족 성원들의 퇴행적 행동을 짚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동적 가족화(KFD)

동적 가족화(KFD)의 실시를 위해서는 A4지 (210×270mm)와 연필(HB/4B), 지우개가 피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동적가족화(KFD) 검사는 용지를 배부하고 “지금부터 자기를 포함하여 자기 가족을 그리는데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 전체를 그리도록 하세요”라고 지시한후, 검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공통된 대답만을 하도록 한다.

동적 가족화검사(KFD)의 채점 방법은 Burns와 Kaufman(1972)의 이론적, 임상적 가설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Myers(1978)의 기준을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구성원간 역동성 관계에 비중을 둔 항목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부록참조). 채점에 기준이 되는 각 항목은 한 변인에 해당하며 0점(적용)과 1점(부적용)으로 채점되며, 각 항목의 채점결과는 다른 항목의 채점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이다. 동적 가족화의 신뢰도는 미술치료 연수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아동심리를 전공한 전문가와 채점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는데, 상관관계계수가 .87로 나왔다.

3. 자료처리

자료처리는 SA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자아분화의 차이,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학년, 형제순위에 따른 자아분화는 ANOVA분석과 사후검증은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분석 정리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에 따른 자아분화수준 차이,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의 차이, 자아분화수준과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과의 관계 순으로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이중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생략하였다.

1. 성별, 연령, 지역, 학년과 자아분화수준

1)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수준은 <표 2>와 같다. 즉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수준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즉 자아의 통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났으

<표 2> 성별에 따른 자아분화수준

하위척도	성별	남학생 M(SD)	여학생 M(SD)	t값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79(0.35)	2.79(0.34)	-0.08
자아의 통합		2.83(0.36)	2.73(0.36)	2.43*
가족투사과정		2.79(0.43)	2.91(0.38)	2.59*
정서적 단절		2.73(0.47)	2.77(0.45)	-0.73
가족 퇴행		3.05(0.45)	3.02(0.45)	0.69

\* $p < .05$

〈표 3〉 연령에 따른 자아분화수준

하위척도	연령	18세-20세 M(SD)	21세이상 M(SD)	t값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77(0.34)	2.81(0.36)	-1.07
자아의 통합		2.72(0.36)	2.84(0.35)	-3.20**
가족투사과정		2.82(0.42)	2.87(0.39)	-1.18
정서적 단절		2.75(0.51)	2.75(0.42)	-0.00
가족 퇴행		3.03(0.45)	3.03(0.45)	-0.00

\*\*p&lt;.01

나, 가족투사과정에서는 여학생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개인관계체계 혹은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인 압력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투사과정에서는 남학생이 과거에서부터 부모가 표현했던 근심과 현재 상태의 자신의 불안과 근심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2) 연령에 따른 자아분화

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자아분화는 자아통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p<.01), 20세이하보다 21세 이상에서 자아통합의 자아분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는 정서적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신념체계를 더 잘 견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향이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강영자, 김윤희, 박현숙, 진향덕, 김희경, 1999).

## 3) 지역에 따른 자아분화

대학생의 지역에 따른 자아분화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보다는 지방의 경우 가족투사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즉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지역 대학생보다 어렸을 때 부모가 표현했던 근심이 현재 자신의 근심과 불안에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 가족의 불안에 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4) 학년에 따른 자아분화

학년에 따른 자아분화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에서 자아통합 영역에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지역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

하위척도	지역	서울 M(SD)	지방 M(SD)	t값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2.75(0.36)	2.81(0.31)	-2.30
자아의 통합		2.83(0.36)	2.84(0.35)	0.62
가족투사과정		2.72(0.47)	2.87(0.45)	2.70**
정서적 단절		2.85(0.40)	2.75(0.43)	-1.39
가족 퇴행		3.00(0.47)	3.03(0.42)	-1.65

\*\*p&lt;.01



〈표 5〉 학년에 따른 자아분화수준

학년	자아분화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1학년	M(SD)	2.72(0.39)	2.72(0.37) <sup>a</sup>	2.78(0.43)	2.81(0.53)	3.11(0.44)
2학년	M(SD)	2.79(0.33)	2.76(0.36) <sup>a</sup>	2.82(0.41)	2.72(0.44)	2.99(0.44)
3학년	M(SD)	2.85(0.30)	2.96(0.40) <sup>b</sup>	2.91(0.44)	2.65(0.51)	3.01(0.47)
4학년	M(SD)	2.84(0.35)	2.94(0.44) <sup>b</sup>	2.91(0.38)	2.79(0.38)	3.04(0.47)
F값		2.00	2.37 <sup>*</sup>	1.79	1.55	1.01

\*p<.05 사후검증: Scheffe

(p<.05). 즉 1, 2학년보다 3, 4학년에서 자아통합의 자아분화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신념 체계가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미란(199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이 발달적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더 많이 진행

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2. 성별, 연령, 지역, 학년과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 1) 성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성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에 대한 결

〈표 6〉 성별과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하위 변인	성 별	남학생N(%)	여학생N(%)	$\chi^2$ 값
지움	0(적 응)	156(94.55)	136(93.79)	0.08
	1(부적응)	9(5.45)	9(6.21)	
회전	0(적 응)	138(83.64)	122(84.14)	0.01
	1(부적응)	27(16.36)	23(15.86)	
등을 보인 인물	0(적 응)	124(75.15)	94(64.83)	3.94 <sup>*</sup>
	1(부적응)	41(24.85)	51(35.17)	
가족수	0(적 응)	132(80.00)	127(87.59)	3.21 <sup>*</sup>
	1(부적응)	33(30.00)	18(12.41)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0(적 응)	124(75.15)	105(72.41)	0.30
	1(부적응)	41(24.85)	40(27.59)	
물리적 근접성	0(적 응)	120(72.73)	93(64.14)	2.64
	1(부적응)	45(27.27)	52(35.86)	
아버지의 운동수준	0(적 응)	71(43.04)	57(39.31)	0.44
	1(부적응)	94(56.97)	88(60.69)	
어머니의 운동수준	0(적 응)	91(55.15)	83(57.24)	0.13
	1(부적응)	74(44.85)	62(42.76)	
자신의 운동수준	0(적 응)	48(29.09)	41(28.28)	0.02
	1(부적응)	117(70.91)	104(47.06)	
가족내 상호작용	0(적 응)	46(27.88)	60(41.38)	6.25 <sup>*</sup>
	1(부적응)	119(72.12)	85(58.62)	
자신과의 상호작용	0(적 응)	31(18.79)	48(33.10)	8.33 <sup>**</sup>
	1(부적응)	134(81.21)	97(66.90)	
구획화	0(적 응)	78(47.27)	65(43.83)	0.18
	1(부적응)	87(25.73)	80(55.17)	
음영 및 사선	0(적 응)	92(55.76)	98(67.59)	4.55 <sup>*</sup>
	1(부적응)	73(44.23)	47(32.41)	

\*p<.05 \*\*p<.01

과는 <표 6>과 같다. 채점에서 0점(적응), 1점(부적응)으로 채점된다.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의 하위 변인 중 등을 보인 인물, 가족수, 가족내 상호작용, 자신과의 상호작용, 음영 및 사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p < .01$ ).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수의 생략, 가족내 상호작용, 자신과의 상호작용, 음영 및 사선에서 부적응에 해당되는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더 적게 하며, 가족내의 갈등 및 불안이 더 크며, 가족 안에서의 소외감

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석(1994)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지각 및 상호작용에 부적응 점수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등을 보인 인물에서 부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가족원의 특정 인물과의 갈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연령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에

<표 7> 연령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하위 변인	연 령	18세-20세	21세 이상	$\chi^2$ 값
		N(%)	N(%)	
자음	0(적응)	138(94.52)	152(95.00)	0.04
	1(부적응)	8(5.48)	8(5.00)	
회전	0(적응)	118(80.82)	138(86.25)	1.65
	1(부적응)	28(19.18)	22(13.75)	
등을 보인 인물	0(적응)	112(76.71)	103(64.38)	5.56*
	1(부적응)	34(23.29)	57(35.63)	
가족수	0(적응)	125(85.62)	132(82.50)	0.55
	1(부적응)	21(14.38)	28(17.50)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0(적응)	103(70.55)	124(77.50)	1.92
	1(부적응)	43(29.45)	36(22.50)	
물리적 근접성	0(적응)	97(66.44)	114(71.25)	0.82
	1(부적응)	49(33.56)	46(28.75)	
아버지의 운동수준	0(적응)	66(45.21)	60(37.50)	1.87
	1(부적응)	80(54.79)	100(62.50)	
어머니의 운동수준	0(적응)	81(55.48)	90(56.25)	0.01
	1(부적응)	65(44.52)	70(43.75)	
자신의 운동수준	0(적응)	37(25.34)	50(32.50)	1.31
	1(부적응)	109(74.66)	110(68.75)	
가족내 상호작용	0(적응)	54(36.99)	52(32.50)	0.68
	1(부적응)	92(63.01)	108(67.50)	
자신과의 상호작용	0(적응)	34(23.29)	43(26.88)	0.52
	1(부적응)	112(76.71)	117(73.12)	
구획화	0(적응)	67(45.89)	73(45.63)	0.01
	1(부적응)	79(54.11)	87(54.38)	
음영 및 사선	0(적응)	88(60.27)	101(63.13)	0.26
	1(부적응)	58(39.03)	59(36.88)	

\* $p < .05$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중 등을 보인 인물변인에서 18세-20세 비해 21세 이상의 경우 부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p<.01$ ).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내의 특정인물과의 갈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지역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

지역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인물의 상대적 높이, 아버지의 운동수준, 음영 및 사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8,  $p<.05$ ,  $p<.01$ ). 서울지역대학생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인물의 상대적 높이, 음영 및 사선에서 부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지역 대학생에 비해 가족내에서 연령에 따라 지위나 힘에 대한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강한 지배 및 힘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대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생보다 아버지의 운동수준에서 부적응 점수가 높게

<표 8> 지역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하위 변인	지 역		$\chi^2$ 값 df=1
	서울 N(%)	지방 N(%)	
지움	0(적 응)	175(93.58)	0.32
	1(부적응)	12(6.42)	
회전	0(적 응)	158(84.49)	0.13
	1(부적응)	29(15.51)	
등을 보인 인물	0(적 응)	127(67.91)	1.31
	1(부적응)	60(32.09)	
가족수	0(적 응)	160(85.56)	1.39
	1(부적응)	27(14.44)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0(적 응)	148(79.14)	6.79**
	1(부적응)	39(20.86)	
물리적 근접성	0(적 응)	135(72.19)	2.65
	1(부적응)	52(27.81)	
아버지의 운동수준	0(적 응)	94(50.27)	6.57**
	1(부적응)	93(49.73)	
어머니의 운동수준	0(적 응)	72(38.50)	1.51
	1(부적응)	115(61.50)	
자신의 운동수준	0(적 응)	52(27.81)	0.19
	1(부적응)	135(72.19)	
가족내 상호작용	0(적 응)	57(30.48)	2.88
	1(부적응)	130(69.12)	
자신과의 상호작용	0(적 응)	46(24.60)	0.19
	1(부적응)	141(75.40)	
구획화	0(적 응)	83(44.39)	0.58
	1(부적응)	104(35.61)	
음영 및 사선	0(적 응)	122(65.24)	3.10*
	1(부적응)	65(34.76)	

\* $p<.05$  \*\* $p<.01$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원 중 아버지에 대해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덜 적극적으로 지각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학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학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은 자신과의 상호작용, 음영 및 사선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9,  $p < .05$ ). 즉 저학년(1, 2)학년이 고학년(3, 4학년)에 비해 자신과의 상호작용, 음영 및 사선에서 부적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자신감 부족 및 내적인 불안, 위축현상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스런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경향과 가족상

〈표 9〉 학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하위 변인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chi^2$ 값
	0(적 응)	1(부적응)					
지움	0(적 응)		70(93.33)	101(95.28)	50(96.15)	71(92.21)	1.25
	1(부적응)		5(6.67)	5(4.72)	2(3.85)	6(7.79)	
회전	0(적 응)		63(84.00)	87(82.08)	44(82.08)	66(85.71)	0.46
	1(부적응)		12(16.00)	19(17.92)	8(15.38)	11(14.29)	
등을 보인 인물	0(적 응)		55(73.33)	78(73.58)	36(69.23)	49(63.64)	2.55
	1(부적응)		20(26.67)	28(26.42)	16(30.77)	28(36.36)	
가족수	0(적 응)		65(86.67)	83(78.30)	46(88.46)	65(84.42)	3.61
	1(부적응)		10(13.33)	23(21.70)	6(11.54)	12(15.58)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0(적 응)		57(76.00)	74(69.81)	37(71.15)	61(79.22)	2.42
	1(부적응)		18(24.00)	32(30.19)	15(28.85)	16(20.78)	
물리적 근접성	0(적 응)		53(70.67)	69(65.09)	34(65.38)	57(74.03)	2.05
	1(부적응)		22(29.33)	37(34.91)	18(34.62)	20(25.97)	
아버지의 운동수준	0(적 응)		35(46.67)	45(42.45)	17(32.69)	31(40.26)	2.57
	1(부적응)		40(53.33)	61(57.55)	35(67.31)	46(59.74)	
어머니의 운동수준	0(적 응)		40(53.33)	58(54.72)	33(63.46)	43(55.84)	1.46
	1(부적응)		35(46.67)	48(45.28)	19(36.54)	34(44.16)	
자신의 운동수준	0(적 응)		16(21.33)	29(27.36)	17(32.69)	27(35.06)	4.01
	1(부적응)		59(78.67)	77(72.64)	35(67.31)	50(64.94)	
가족내 상호작용	0(적 응)		28(37.33)	30(28.30)	16(30.77)	32(41.56)	4.09
	1(부적응)		47(62.67)	76(71.70)	36(69.23)	45(63.64)	
자신과의 상호작용	0(적 응)		18(24.00)	21(19.81)	12(23.08)	12(36.36)	6.85*
	1(부적응)		57(76.00)	85(80.19)	40(76.92)	49(63.64)	
구획화	0(적 응)		34(45.33)	46(43.40)	25(48.08)	38(49.35)	0.74
	1(부적응)		41(54.67)	60(56.60)	27(51.92)	39(50.65)	
음영 및 사선	0(적 응)		45(60.00)	56(52.83)	34(65.38)	55(71.42)	6.95*
	1(부적응)		30(40.00)	50(47.17)	18(34.62)	22(28.57)	

\* $p < .05$

호간의 긍정적인 수용적 태도가 높다는 천희영·류혜옥(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3.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5) 형제순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대학생의 형제 순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에서 가족수, 물리적 근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10,  $p < .05$ ). 즉 외동인 경우가 가족수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가족 구성원을 빼고 그런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외동인 경우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속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큰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반면에 물리적 근접성에서는 맏이나 외동에 비해 중간과 막내인 경우가 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즉 가족원 중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1>과 같다.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중 지움변인에서 적응집단이 인지적 기능대 정서적 기능의 자아분화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p < .05$ ). 또한 회전변인에서는 가족투자과정, 정서적 단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5$ ,  $p < .01$ ), 가족수의 경우 가족퇴행에서( $p < .05$ ), 인물의 상대적 높이에서 가족내 상호작용에서는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서( $p < .05$ ,  $p < .01$ ), 자신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  $p < .01$ ).

즉 지움변인에서 가족내의 특정인물에 대한 같

<표 10> 형제순위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하위 변인	형제순위	맏이N(%)	중간 N(%)	막내N(%)	외동N(%)	$\chi^2$ 값
지움	0(적응)	115(92.00)	61(98.39)	103(93.64)	13(100.00)	3.96
	1(부적응)	10(8.00)	1(1.61)	7(6.36)	0(0.00)	
회전	0(적응)	104(83.00)	54(87.10)	90(81.82)	12(92.31)	1.54
	1(부적응)	21(16.80)	8(12.90)	20(18.18)	1(7.69)	
등을 보인 인물	0(적응)	89(71.20)	40(64.52)	78(70.91)	11(84.62)	2.33
	1(부적응)	36(28.80)	22(35.48)	32(29.09)	2(15.38)	
가족수	0(적응)	110(88.00)	49(69.35)	92(83.64)	8(61.54)	7.41*
	1(부적응)	10(13.33)	23(21.70)	18(16.36)	5(38.46)	
인물들의 상대적 높이	0(적응)	96(76.80)	43(66.13)	79(71.82)	11(54.62)	2.22
	1(부적응)	29(23.20)	19(33.87)	31(28.18)	2(15.38)	
물리적 근접성	0(적응)	90(72.00)	41(66.13)	69(62.73)	13(100.00)	8.57*
	1(부적응)	35(28.00)	21(33.87)	41(37.27)	0(0.00)	
아버지의 운동수준	0(적응)	56(44.80)	28(45.16)	40(36.36)	4(30.77)	2.71
	1(부적응)	69(55.20)	34(54.84)	70(63.64)	9(69.23)	
어머니의 운동수준	0(적응)	71(56.80)	36(58.06)	60(54.35)	7(53.85)	0.26
	1(부적응)	54(43.20)	26(41.94)	50(45.45)	6(46.15)	
자신의 운동수준	0(적응)	32(25.60)	23(37.10)	30(27.27)	4(30.77)	2.86
	1(부적응)	93(74.40)	39(62.80)	80(72.73)	9(69.23)	
가족내 상호작용	0(적응)	48(38.40)	24(38.71)	30(27.27)	4(30.77)	3.95
	1(부적응)	77(61.60)	38(61.29)	80(72.73)	9(69.23)	
자신과의 상호작용	0(적응)	36(28.80)	17(27.42)	23(20.91)	3(23.08)	2.09
	1(부적응)	89(71.20)	45(72.58)	87(79.09)	10(76.92)	
구획화	0(적응)	18(46.40)	31(50.00)	48(43.64)	6(46.15)	0.65
	1(부적응)	67(53.60)	31(50.00)	62(56.36)	7(53.85)	
음영 및 사선	0(적응)	85(68.00)	40(64.52)	58(52.73)	7(53.85)	6.35
	1(부적응)	40(32.00)	22(35.48)	52(47.27)	6(46.15)	

\* $p < .05$

(표 11)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평균(표준편차)

동적 가족화 반응		자아분화	인지적 기능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지움	0(적응)		2.80(0.35)	2.79(0.37)	2.85(0.42)	2.76(0.47)	3.04(0.46)
	1(부적응)		2.68(0.19)	2.67(0.28)	2.74(0.33)	2.61(0.45)	2.92(0.34)
t값			2.37*	1.68	1.36	1.34	1.41
회전	0(적응)		2.79(0.36)	2.79(0.36)	2.87(0.40)	2.77(0.46)	3.03(0.47)
	1(부적응)		2.79(0.29)	2.78(0.39)	2.72(0.45)	2.63(0.47)	3.05(0.37)
t값			-0.02	0.07	2.16*	1.91*	0.32
등을 보인 인물	0(적응)		2.78(0.36)	2.30(0.38)	2.83(0.41)	2.75(0.47)	3.04(0.46)
	1(부적응)		2.82(0.29)	2.76(0.30)	2.88(0.40)	2.73(0.43)	3.03(0.41)
t값			-0.84	0.69	-1.01	0.51	0.15
가족수	0(적응)		2.78(0.35)	2.79(0.37)	2.84(0.42)	2.75(0.47)	3.06(0.45)
	1(부적응)		2.84(0.32)	2.74(0.36)	2.84(0.38)	2.77(0.41)	2.90(0.43)
t값			-1.02	0.85	0.00	-0.43	2.40*
인물의 상대적 높이	0(적응)		2.81(0.33)	2.80(0.36)	2.86(0.41)	2.79(0.44)	3.05(0.45)
	1(부적응)		2.74(0.37)	2.75(0.37)	2.80(0.44)	2.64(0.51)	2.98(0.45)
t값			1.40	1.22	1.03	2.44*	1.21
물리적 근접성	0(적응)		2.78(0.36)	2.80(0.37)	2.85(0.41)	2.75(0.46)	3.06(0.44)
	1(부적응)		2.82(0.31)	2.75(0.34)	2.84(0.40)	2.72(0.47)	2.79(0.47)
t값			-0.71	1.16	-0.03	0.54	1.66
아버지의 운동수준	0(적응)		2.78(0.35)	2.82(0.38)	2.89(0.42)	2.80(0.49)	3.06(0.47)
	1(부적응)		2.80(0.34)	2.76(0.35)	2.81(0.40)	2.71(0.44)	3.01(0.44)
t값			-0.32	1.44	1.64	1.73	0.83
어머니의 운동수준	0(적응)		2.78(0.37)	2.79(0.37)	2.82(0.43)	2.75(0.47)	3.04(0.47)
	1(부적응)		2.77(0.36)	2.77(0.36)	2.87(0.39)	2.74(0.45)	3.01(0.44)
t값			-0.35	0.63	1.19	0.14	-0.16
자신의 운동수준	0(적응)		2.78(0.40)	2.78(0.39)	2.85(0.44)	2.70(0.48)	3.02(0.47)
	1(부적응)		2.80(0.32)	2.79(0.35)	2.84(0.40)	2.77(0.45)	3.04(0.44)
t값			-0.37	-0.18	0.29	-1.16	-0.19
가족대상호작용	0(적응)		2.80(0.35)	2.73(0.37)	2.89(0.41)	2.88(0.40)	3.15(0.42)
	1(부적응)		2.79(0.34)	2.84(0.35)	2.82(0.40)	2.67(0.47)	2.97(0.45)
t값			0.18	-2.80*	1.35	4.01**	3.42**
자신의 상호작용	0(적응)		2.78(0.33)	2.73(0.36)	2.87(0.38)	2.87(0.38)	3.18(0.43)
	1(부적응)		2.80(0.45)	2.80(0.35)	2.83(0.42)	2.71(0.48)	2.98(0.44)
t값			0.44	1.44	0.77	2.90**	3.38***
구획화	0(적응)		2.76(0.39)	2.80(0.35)	2.83(0.42)	2.75(0.47)	3.07(0.45)
	1(부적응)		2.82(0.30)	2.77(0.37)	2.85(0.40)	2.74(0.45)	3.00(0.44)
t값			-1.32	0.66	-0.42	0.32	1.28
음영 및 사선	0(적응)		2.78(0.35)	2.77(0.36)	2.85(0.42)	2.76(0.48)	3.01(0.43)
	1(부적응)		2.81(0.32)	2.80(0.36)	2.83(0.40)	2.73(0.43)	3.06(0.48)
t값			-0.65	-0.60	0.58	0.49	-0.88

\*p&lt;.05 \*\*p&lt;.01

등이 적은 집단이 자신의 주관적 경향과 객관적 경향을 잘 분리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회전변인은 특정인물에 대한 배척을 알아보는 것으로 특정한 가족원에 대한 배척이 없는 집단인 경

우 과거에서부터 표명했던 근심이 자신의 불안과 근심에 투사되지 않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수의 생략이 없고 가족내의 상호작용이 많은 집단인 경우, 가족안에서 권위적인 질서를 인식하는 경우(인물의 상대적 높이를 연령에 따라 순서적으로 인식한 경우), 자신의 주관적 경향과 객관적 경향을 잘 분리하고, 가족내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성원들이 대처해 나가는 방법,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역기능적인 의사거래유형이나 가족성원들의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내 상호작용과 자신과 다른 인물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집단인 경우가 체제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자기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간의 조화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시기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고자 하는 발달적인 특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가족의 역동성 및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동적가족화(KFD)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에 대한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은 성별, 연령, 지역,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자기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오는 부모의 근심과 불안에 의해 현재 자신의 근심과 불안이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행동에 책임을 지는 경향이 강하며 자기신념체제를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서울지역대학생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생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 가족의 불안에 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동적 가족화 반응은 성별, 연령, 지역, 학년, 형제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원과의 상호작용이 더 적으며, 가족안에서 소외감을 더 느끼고 있지만, 가족원중 특정인물과의 갈등은 여학

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내의 특정인물과의 갈등이 더 크며, 지방에 있는 대학생이 서울지역 대학생에 비해 가족내의 연령에 따른 지위나 힘에 대한 분배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강한 지배 및 힘에 대한 내적인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나, 심리적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울지역 대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생보다 아버지에게 대해 보다 덜 적극적으로 지각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의 경우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고 자신감부족 및 내적불안, 위축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이 가족원간의 긍정적인 수용적 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형제순위에 따라 외동인 경우가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속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으며, 중간과 막내인 경우는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먼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과의 관계에서 가족내의 갈등이 적으며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많은 집단인 경우, 자신의 주관적 경향과 객관적 경향을 잘 분리하고 부모와 애착이 잘 이루어졌다. 또한 가족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역기능적인 의사거래유형이나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내 상호작용이 적은 집단의 경우는 자기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간의 조화를 이루어, 대학생시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독립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동적 가족화 반응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갈등 및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신념체제 및 개인의 정신건강, 가족에 대한 긍정적이며 수용적 태도, 위기대처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관계를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한 평가도구 중 동적 가족화는 검사의 해석적인 부분에서 아직 완전히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확보가 어려우며, 채점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줄이기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동적 가족화에 대한 검사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임상적인 관찰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질적인 연구가 보다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동적 가족화가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다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아분화, 동적 가족화

## 참 고 문 헌

- 강영자·김윤희·진향덕(1998). 자기성장 프로그램 경험에 따른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연구, 학생생활연구(대전대학교), 7.
- 강영자·김윤희·박현숙·진향덕·김희경(1999). 대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사랑유형, 한국생활과학회지, 9(1).
- 권기덕·김동연·최외선(1993). 가족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특수교육.
- 권미영(199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1997). 대학생의 고독: 정서적·사회적 고독 척도의 개발. 학생연구(서울대학교), 30(1).
- 고현선(1993). 부모의 자아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1997).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분화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재(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희(1998). 아동의 성격과 동적 가족화 반응특성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88).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육문화사.
- 김현진(1999). 청소년의 부모-자녀결합과 동적가족화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련(1992). 행동장애 청소년의 운동성 가족화 반응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용·한창환(1999). 부모-자녀관계를 동반하는 아동에서 운동성 가족화 검사의 반응에 관한 연구, 임상예술, 10(1).
- 양익홍(1984). 정상아동과 정서장애 아동의 운동성 가족화 반응의 요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미(1993). 청년기 가족관계와 대학생활의 적응, 학생연구(서울대학교), 29(1).
- 이명희(1997). 유아의 성격특성에 따른 인물화 표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1994). 동적 가족화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관계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미란(1994).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따른 자아분화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춘애(1993).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의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천희영·류혜옥(1992). 대학생의 아이덴티티수준과 가정 및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고신대학교), 7.
- 최외선(1995). 한국아동과 한국계 미국 아동의 자아개념과 동적가족화에 의한 가족역동성과의 비교연구, 미술치료연구, 1(1).
- 최외선(1996).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동적 가족화에 의한 가족지각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 연구, 3(2).
- 최외선·전미향(1996). 미술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와 동적가족화 반응특성, 미술치료연구, 3(2).
- 최외선(1998). 동적 가족화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 생의 가족지각 비교연구, 미술치료연구, 5(1).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p. Burns, R.C.(1972). Actions, Styles and Symbols in Kinetic Family Drawings.
- Giglio, S.G.(1987).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adolescence: Two comparative studies from development and family systems perspectiv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essachusetts University.
- Hartman, A.(1981), Bowen Family system: Theory and Practice, In E.R. Hoffman, J.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 Hollander, C.E.(1983). Comparatvie family systems of Moreno and Bowen.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Psychodrama and Sociometry*, 36(1).
- Lopez, F.G., Campell, V.L. & Watkins, E.(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e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of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3(1).
- Myers, D.V.(1978). Towards an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 of Kinetic Family Draw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 O'Brien, R.O & Patton, W.F.(1974). Development of an object scoring method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